

[종합]

공중보건의 부족 ... 농어촌 진료 공백 우려

의학전문대학원·병역미필자 감소·의과대 여학생 증가영향 전남지역 해마다 감소 ... 2018년엔 최소 필요 인력도 못채워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전국에서 섬과 벽지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을 비롯한 농어촌지역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전환에 따른 병역미필자 감소와 의대 입학 여학생의 증가 등으로 앞으로 공보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전국에서 공보의 의존율이 가장 높은 전남지역에서 진료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율을 53%,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율을 70%로 잡고, 공보의 복무기간을 현재의 3년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공보의 수를 추산한 결과 2011년 4천403명, 2013년 3천893명, 2016

년 3천286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2천717명에서 2020년에는 1천860명으로 격감하는 등 2018년 이후부터는 공보의가 최소 필요 인력 이하로 줄어듦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는 2000년대 초 20%에 그쳤던 전국 의대의 여학생 비율이 최근 40% 수준으로 치솟고, 지난해 전국의 일반 의대 41곳 가운데 20곳의 의

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병역을 마친 일반 대학생이나 일반인도 입학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공보의에 의지해온 전남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조치가 늦어질 경우 생명을 잃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5천300명의 공보의 가운데 전남지역에 710명이 근무해 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의료인력 중 공보의 의존비율은 20%나 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변·신씨 추가협의 포착

검찰, 변씨 미술품 횡령 등 ... 신씨 영장 재청구키로

변양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장아씨 변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7일 신씨의 추가 협의를 포착하고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신씨가 2005년 변 전 실장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기획예산처에 성곡미술관에서 전시된 미술품을 증개하면서 그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또는 횡령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신씨가 설치미술가 윤석영씨로부터 '음차이는 고요' 4개 액자 한 세트를 자신이 직접 설치하겠다고 운반해간 뒤 3개만 설치하고 1개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기획예산처가 어떤 계약을 통해 이들 미술품을 인도받았는지 살펴보고 적용할 법률조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재청구될 신씨의 구속영장에도 이 혐의를 적시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씨의 이런 혐의 사실을 2005년 동국대 교원 임용과 올해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과정에서 가짜학력을 제출한 혐의, 미술품 공금 횡령 혐의, 직임과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혐의 등과 묶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추가 협의가 드러남에 따라 영장 청구가 예정보다 미뤄지고 있다"며 "영장이 28일에 청구될 수 있지만 늦으면 다음날인 주말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신씨가 자신이 일하던 성곡미술관에서 대기업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보강 수사하기 위해 이날 박문순 미술관장을 불러 신씨와 대질신문을 벌였다.

신씨는 검찰에서 횡령한 자금을 박 관장에게 상납했으며 그 대가로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원과 1천300만원짜리 목걸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관장은 오피스텔 보증금은 대납한 적이 없고 1천800만원짜리 목걸이를 대가없이 신물했다며 신씨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박 관장이 대기업 후원금을 조달해온 신씨와 공모해 횡령에 일부는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 과정에서 박 관장의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7차로 소환된 변 전 실장을 상대로는 동국대 재단 이사장 영배 스님이 회주인 개인 사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집행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재확인했다. /연뉴스

광양만권 통합 무산

광양시장 논의 중단 선언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를 한 행정구역으로 묶으려는 광양만권 3개 시 통합 노력이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이성용 광양시장이 27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3개 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통합 반대 의견을 묵살할 수 없다"며 통합 논의의 전격 종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순천시장과 여수시장, 광양시장이 지난 5일 여수 MBC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통합을 잠정 합의한 지 22일 만에 통합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서정환

이 시장의 통합 논의의 중단 선언으로 3개 시 시장이 2012 세계박람회 개최 결정일인 오는 11월27일 이전에 통합 양해각서(MOU)를 세계박람회기구(BIE)에 제출하기로 한 계획도 물 건너갔다. 그간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등 3개 시 통합 인구가 70만 명 가량 되면 박람회 유치에 유리할 것"이라며 3개 시 통합 의지를 개최 결정일 전에 BIE에 밝히길 바랐던 여수시는 광양시의 '통합 보이콧'에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3개 시 통합이 광양만권 공동번영과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데 광양시가 주민 반대 여론을 이유로 논의의 마저 중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DJ, 클린턴에 도자기 선물

미국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27일(한국시간) 뉴욕 셰라톤 호텔에서 열린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연례회의에 참석,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게 도자기를 선물하고 있다. /연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분위기 안떠서 미치겠다

1면 '지방의 선택'서 계속

손 후보는 새로운 기구를 정부 차원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쥐서 청와대에 자치수석실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 후보는 두 정책에 대해 모두 신중론을 표명했다.

대통령상당 세 후보들의 답변은 한 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국가균형원 설치하는 작은 정부 추세에 맞지 않아 필요가 없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중앙행정관청의 획기적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이, 손 후보가 '획기적 이양'을 담담 반면 정 후보는 '신중론'이라고 답했다. 세 후보 모두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 △기관위임사무 폐

지 △자치 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기초자치단체 재편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공공부문 지역인재 할당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대육성특별법 제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대폭 이관 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경제 관심사항인 지방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대형업체의 지역공사 참여제한 확대에 대해 손 후보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이 후보는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 손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손 후보는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고, 이·정 후보는 '신 균형발전, 후 규제완화'라며 비수도권 입장을 대변했다.

임상규 농림장관 來道



임상규 농림부장관(사진)이 전남지역 농촌 실태를 살피기 위해 28~29일 나주와 담양을 방문한다.

임 장관은 28일 오후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들러 '농업인 신문고' 설치 행사에 참석하며 농업박람회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29일 오전에는 담양군 수북면 '한이직 기념도서관'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우리말 교육을 주관한 후 상경한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횡령 공방' 신장아의 미소 의미는?

박문순 관장과 대질신문 후 일찍 귀가

고액의 목걸이를 주고 받을 정도로 막대한 사이로 알려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신장아씨가 검찰의 성곡미술관 자금 횡령 수사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27일 7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신씨가 예상과 달리 조사를 받은 지 5시간도 안 돼 미소를 지으며 검찰청사를 나와 금급증을 자아내고 있다.

검찰은 박 관장과 신씨의 성곡미술관 자금에 대해 진실이 엇갈리자 이날 이들을 함께 불러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씨는 검찰에서 대기업들의 후원금을 빼돌려 박 관장에게 상납했으며 그 대가로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원과 1천300만원짜리 목걸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관장은 오피스텔 보증금은 대납한 적이 없고 1천800만원짜리 목걸이를 대가없이 선물했다며 신씨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태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신씨의 횡령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이 이날 신씨를 예상보다 일찍 돌려보낸 이유와 신씨가 보인 미소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연뉴스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상과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우체통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계좌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업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062)220-0524·직통:(062)227-9600·FAX:227-9500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617-011-108334
※매김주:(주)광주일보사

분실
아파트 공금계좌서
No. 330199
광주 북구 임동 2차 한국아파트들
206동 1006호
계약자명 황경숙
상기 계좌서를 분실 공고함.

차별화된 국제결혼
✓직년 전년 22.7% 국제결혼 이원화되면
A*신부결혼제 혜택도
✓크레딧·환율(인사·교사·공무원등)
A*신부결혼을 추천하였습니다.
A* 결혼정보사
☎062)376-9776, 011-9676-8220

사업계획서
•상권분석/사업성 분석
•브랜드/프랜차이즈 기획
•관공서 및 금융권 제출용
유통 사업 계획서
•대형 유통업체 입점 서류
상담환영
유통기획전문회사 062)521-1532
청어람기획 016-266-1532

신금 폐차차량 및 건설기계장비 고가매입
•전화 한 통화로 견인부터 폐차 말소 완전무료!
•노후차량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능(단 저당이 있는 경우 제외)
•소형승용-티코,프라이드 등등 - 20만원
•중형승용-소나타2-쏘나타3등 - 35만원
•소형합합 및 중형합합-40만원(단 엔진미션이 이상 없어야 함)
•소형화물-보고/포타-40만원
•사고차량도 가능(단 엔진미션이 이상 없어야 함)
•어디든지잡니다
※지정된 폐차장소
지역번호없이
미성폐차산업(주) 1566-8200
011-614-8484

고시원
매매
◆조대 후문쪽
고시원 매매
◆현재 운영 영업중인
고시원 입니다.
●5층건물 매매가 7억5천
(용자 3억5천 포함)
●6층건물 매매가 7억5천
(용자 3억5천 포함)
●6층건물 매매가 8억5천
(용자 4억 포함)
●7층건물 매매가 9억5천
(용자 3억9천 포함)
●4층-6층건물 매매가 20억
(용자 6억7천 포함)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시원에 투자
하십시오
H.P:011-604-5239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차량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초·중등 특기적성 미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급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주1회 8주 2개월
★교육비: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동부경찰서후 무등고시원학원
★접수방법: 신청순 20명 전액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아이회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10월 28일 공인중개사 합격
21일 파이널특강 3주 완성
출제유형별 핵심요약 및 실전대비 최종정리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첨단점 971-0002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